

너희가 디지털을 아느냐?

김강석 / SBS-TV 보도국 차장

디지탈(digital) 시대다. 디지털이 붙지 않으면 애기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디지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제품과 디지털 방송에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과학은 물론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은 이전의 아날로그식 세계와 완전히 구분되는 큰 틀 혹은 내용과 형식의 일대 변화를 뜻하는 고유명

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보처리 등 모든 기술이 0과 1로 조합되는 비트(binary digit)로 이뤄지는 단계를 디지털이라고 한다. 즉 이 조합으로 이뤄지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에 가까워서 제한된 수치로 기술이 처리되던 아날로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저장 용량은 커지면서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기술적 정교함과 정보처리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역사에서 종이 발명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방송인협회(NAB) 주관 첨단방송장비 전시회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이 방송장비 쇼는 디지털 세계의 진수를 보여 줬다.

그동안의 방송 테이프와 테이프로 녹화하고 편집하는 시대는 사라지고 컴퓨터 단말기 안으로 테이프 입력된 뒤 자유자재로 편집되는 것은 물론 여러 수만 편의 테이프나 자료도 중형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감쪽 같이 저장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었다.

방송용 카메라 역시 광디스크가 필름이나 테이프를 대체해 고화질의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반영구적으로 보관, 저장, 편집이 가능하도록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방송용 비디오를 플레이 시키고 한 화면에서 수십개의 비디오를 불러오게 하는 것은 물론 순서를 자유자재로 바꾸게 하는 새로운 기술방식도 쏟아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단기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보 폭발 등이 과연 우리의 행복까지 보장해 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에서 허우적되고 심지어 정보쓰레기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디지털 시대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디지털식으로 또다시 해답을 끌어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PPK

